



# 사람 사랑하는 건축물

김우성  
(주)삼희도시건축

**내가** 이는 미국인 건축가가 한국에 와서 서울구경을 한후 하는 말이 “한국 건축가들이 부럽다”라고 하기에, 이유를 물으니 방문한 건축설계 사무소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보니 일도 많고 적은 인원을 데리고 많은 일을 하니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미국 친구는 우리 건축사들이 미국과 같이 여유있는 설계비와 설계기간을 준다고 가정하여 몇명 안되는 직원들이 며칠밤을 야근해 가면서 일하면,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치우는” 설계공장이 아닐런지. 미국친구가 경탄할만한 소위 세계 제일의 추진력있는 건축사들인가 보다.

내가 미국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배운점은 프로젝트 하나 하나 정성을 쏟는다는 점이다. 건축물이란 이 지구상에 유일한 장소에, 유일한 건축주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특이한 건축설계가 요구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태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도면 한매에 평균 10~20시간 정도 소모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사무실에서는 100~200시간을 평균으로 삼고 있었다. 우리 건축사들은 정말 “왕성한 설계 소화능력”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겠다. 이런 왕성한 소화능력을 위해서는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야 할터인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많은 신도시, 신시가지들이 계획되고, 많은 재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하여 “설계 물량 확보”에 기여하였으니 우리 건축사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런지(?)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10여년간은 정말 실

감나는 시기였다.

내가 약 8년의 미국생활후 78년도에 귀국하였을 때 정말, 완전 변모된 서울의 모습에,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여 간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 정도였다. 우리 건축사들이 설계를 많이도 해치워 설계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많은 건물이 헐리고, 짓고, 또 재개발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서울의 시가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형수술, 정형수술, 동맥경화수술 등을 거쳐 심장이식수술까지 하는 사이에 우리 서울의 옛정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이 건축활동이 아니고, 옛것을 보존하는 것도 건축사의 주요과제일텐데,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짧다는 유럽의 도시들은 몇십년이 지나도 걸 화장, 의복정도 갈아입는 정도의 변화라는데 우리는 너무도 빠른 시간에 많이도 변화가는 것 같다.

우리는 건축물을 많은 사람들이 “소모품”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빨리 지어, 잠깐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다시 지어 이사가고, 또는 장사목적으로 값싸게 지었다가, 돈 좀 벌면 헐고 다시 짓고하는 생활태도 때문인가 보다. 이런 건축주들의 “건물 애착심 결핍증”으로 인해 우리 건축사들은 “적당히”, “빨리”, “싸게” 설계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시 건축주들 때문에 우리 도시의 건물들이 “짜구려”가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어느 건축주는 열심히 일하여 번돈, 전부를 털어 일생 소원의 집을 지었으나 실패한 경우도 많이 보았다. 잘못된 도시계획, 잘못된 설계, 잘못 시공에 의한 결과로 인해 희생된 건축주들이었다.

첫째 부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안목의 도시계획을 믿고 지었다가 생각치 않던 불량환경의 침해로 인해 재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본래 목적했던 용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건물이 헐리거나 변경되는 경우이며,

둘째 부류는 건축주의 본래 목적을 도외시하는 소위 “허기방” 또는 “설계사업가”라는 건축사들의 사망감 부족에서 나오거나, 또는 “작품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건축사들의 “창작 연습 대상물”이 되어 쓸모없이 되는 경우이며,

셋째 시공자의 부당한 “이윤추구의 목표물”이 되어 건축주의 전 재산이 부실시공의 모델 하우스처럼 되어버린 경우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현상이 “건물 사랑”, “마을 사랑”, “나라 사랑”, 나아가서는 이웃사랑하는 “사람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닐까?

우리 건축사들은 기술을 갖춘 기술자, 창의력있는 예술가의 자질도 꼭 필요하지만, 자기를 위한 설계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설계, 봉사자로서의 건축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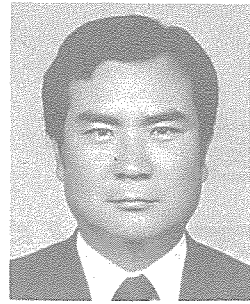
사람들을 바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장소, 대화의 장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축물”이 되리라. 이런 건축물들은 사람들이 아끼고, 가꾸고, 보존하여 오랜동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며 사랑 받으리라.

일하다가 잠시, 건축사로서 나 자신의 미흡한 점을 생각해 본다.

1945년생, 서울대, MIT대학원 졸업  
AIA 회원, 현재 (주)삼희도시건축 대표

# “서 두 림”

이 강 범  
이강범건축사사무소



**우리가** 갖고있는 습성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서두르고 사는지……

사무실에 출근만하면 모든게 바쁘고 빨리 처리해야되는 초긴장 상태의 서두름과 강박관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그뿐만은 아니다.  
밖에라도 나가면 달한가?

그렇지도 않다. 건물목에서는 신호등이 켜지기도전에 횡단보도를 경주나하듯 출발하는 각종 차량들과 질주하는 차들 사이로 이리끼고 저리끼고 빵빵대고 정신없다. 신호등이 켜지는순간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면 뒤에서 들리는 강한 크락슨 소리가 어쩐지 기분나쁘게 들린다. 어찌다 잘못되어 진로방해라도 하면 죽일놈 취급을 당하기 일수다.

조금씩 양보하고 질서를 지켜 즐거운 낮으로 대하고 느긋해 진다면 어떨까?

원리원칙만 따져, 서두르다가 잘못되는 결과를 흔히본다. 생활의 세계에서 좀더 인간적이어야 한다면 이생각 저생각 차분히 습성의 범위를 탈피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 정리하면 좋은 결과가 올듯하다. 주어진 시간은 없고 짧은 기간 내에 근거에 위배되면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어서인가?

실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실수는 여기서 발생될 수 있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정책 실수로 인한 결과의 손실은 크다.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계산된 컴퓨터의 결과는 틀림없지만 자료의 미숙으로 계산된 컴퓨터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이다. 정확하고 차분히 자료를 관리하고 처리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텐데.

서둘지말고 느긋하게 처리하면 어떨까? 서둘러만든 각종 규제장치 중 어딘

가 물샐틈이 있다. 다시 임시로 틀어막는다. 또다른 약한 곳에서 터져 나오면 급히 서둘러 막는 현실이 비단 건축행정 뿐아니라 각종 행정법규 등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서둘러 퍼먹은 밥이 채한 원리일까?

서두르는 건축주가 많다.

미리 기본설계를 의뢰하고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본설계를 확정하지 않고 그저 생각나는대로 설계를 의뢰하고 하루속히 허가 빼 달라고 한다.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땅파려 달려든다. 장마철에 접어들면 나쁘단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준공을 요구한다. 서류상 원칙에 맞으니 편하게 준공해준다.

그 집이 그후로 어떨까?

나 자신도 경험한바 있지만 살다보면 보수해야 할 곳이 많고 후회스럽다. 이 또한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설계와 시공을 했어야 되었을텐데……

건축사라면 누구나 어려운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꽤 경력도 가지고 있다. 잘해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보여주는 시민도 있지만 건축사의 사회적 위치를 몽개버리려 하는 건축주가 많다. 건축주 마음대로 하려드는 이들 우리들이 불행하게도 건축사가 없어서는 안될 고객이니 어찌할까?

이제껏 세워진 건축물이 전부 내가 설계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는 기능적이고 튼튼하며 경제적이고, 미적인 건물도 있을것이고 기능보다는 최신의 모델을 자랑하는 외관위주의 설계도 있다. 개중에는 건축주 요구에 의한 건축물도 있을 것이다. 건축주의 필요없는 입김이 건축사의 계획을 바꾸고 갈등에 빠지게 한다. 시간이 지

나면 지날수록 흉칙해지고 불편하고 실증나는 생활공간이 되고말 수 있다. 이로인한 사람들의 불편함에 대한 책임은 내가져야지?

이것이 바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후세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습성이 언제부터 자기만을 위한 시대가 되었던 말인가.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한 생활관념 속에서 개인의 힘은 큰가보다. 개인경기인 기능올림픽에선 금메달이 수두룩하고 세계를 제패하는데, 왜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질 않나?

서로간 뭉칠 수 있는 힘과 서로 토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찾아내어 개인능력과 협동능력을 합친다면 이웃 일 본쯤이야……

이승만 박사의 명언이 생각된다.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우리 건축사계에도 발버둥치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 좋은 품질의 도면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한 노력이 건축사간 서로 협의되면서 왜 지켜지지 않을까……

이것도 다 국민성 탓일까?

자유경제 체제에서 개인간의 격차는 있겠지만 그 격차는 최소한의 기준치 이상에서 이야기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질서가 아닌가 싶다. 질서를 지키며 느긋하게 살아보자.

생활의 패턴을 정상화시켜 우리도 한번 선진 국민답게 살아보자.

생활의 여유와 창작의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건축사가된 나 자신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이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